

2015년03월11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④	⑤	⑤	①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⑤	②	③	⑤	③	③	④	②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의 ‘나’는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그가 강조한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살이 찌고 게을러진 준마(駿馬)를 일개우라고 신이 보낸 듯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질타해 왔습니다. 신체나 재산은 덕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지식과 덕은 온갖 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 ① 진리 탐구에 열중하고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한다.
- ②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유일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 ③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
- ④ 진리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장을 똑같이 존중한다.
- ⑤ 감각적 경험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쾌락을 추구한다.

2.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요구받는 존재이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나) 인간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으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① (가)는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본다.
- ② (가)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 ③ (나)는 인간을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연고적 존재로 본다.
- ④ (나)는 공동체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무관하다고 본다.

3.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높이 지 않아야 백성이 다투지 않게 된다. 욕망을 일으킬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아야 백성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을: 군주가 힘으로 지배하면 백성이 진심이 아니라 힘이 약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인의(仁義)의 덕으로 모범을 보이면 백성은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 ① 백성이 왕이나 국가보다 더 중요함을 부정하고 있다.
- ② 도덕을 바탕으로 한 통치가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③ 법과 제도가 사회 안정의 기본 조건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④ 인위적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이상적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⑤ 규범을 통해 백성의 본성을 교화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4.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이 각각 맡은 바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갑



을

- ①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다.
- ② 절제를 정확히 아는 자는 절제 있게 행동하게 된다.
- ③ 용기는 국가의 방위자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 ④ 품성적 덕은 유덕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 ⑤ 실천 의지의 나약함은 덕에 대한 지식으로 극복된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해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삿된 견해, 삿된 뜻,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생각, 삿된 선정(禪定)은 저 언덕[彼岸]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바른 견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 곧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A)</td><td></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div> <p>[가로 열쇠] (A):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 상태. 용기는 비겁과 만용 사이의 ○○임 (B): 유·불·도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 고유 사상. ‘난랑비 서문’에 언급되어 있음</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하늘의 도[誠]를 본받고자 하는 경(敬)의 수행 방법이다.
- ② 분별적 관념을 잊고[坐忘] 마음을 비우는 수행 방법이다.
- ③ 지인(至人)이 되기 위한 팔정도(八正道)의 수행 방법이다.
- ④ 불변의 자아를 찾아서 성불(成佛)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 ⑤ 쾌(快)와 고(苦)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수행 방법이다.

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및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 우연히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어 얻은 이득은 그 령지 않은 사람들의 처지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라
- ② 각자 능력껏 일하고 재화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
- ③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마라
- ④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라
- ⑤ 천부적 우연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라

7.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사단(四端)은 선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안점이 이(理)에 있기에 이발(理發)이라고 한다. 칠정(七情)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주안점이 기(氣)에 있기에 기발(氣發)이라고 한다.
을: 사단은 다만 이(理)만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기(理氣)를 함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 것이요, 사단과 칠정은 서로 다른 두 정(情)이 아니다. 따라서 이기가 서로 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① 사단과 칠정은 그 연원이 다른가?
- ② 사단은 성(性)이고 칠정은 정(情)인가?
- ③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가?
- ④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선악이 섞여 있는가?
- 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한 정인가?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위의 갑, 을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은 선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안점이 이(理)에 있기에 이발(理發)이라고 한다. 칠정(七情)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주안점이 기(氣)에 있기에 기발(氣發)이라고 한다.
을: 사단은 다만 이(理)만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기(理氣)를 함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 것이요, 사단과 칠정은 서로 다른 두 정(情)이 아니다. 따라서 이기가 서로 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을 때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겨도 구해 주지 않는다면 사랑[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마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보 기 >

ㄱ. 사덕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다.
ㄴ. 사단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한 마음이다.
ㄷ. 사덕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ㄹ.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실마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9. 갑, 을 사상가들이 <사례>의 K 씨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할 때, 이들이 제시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 그 자체는 의지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대립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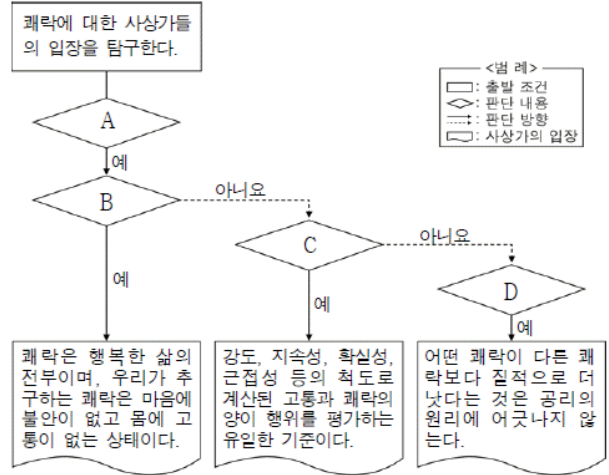
을: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려는 능력, 즉 의지를 갖는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 이성이다.

< 사례 >

K 씨는 불이 난 이웃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보았다. K 씨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들어가서 그 이웃을 구해 무사히 빠져 나왔다.

- ① 갑: 이웃의 생명을 구하라는 정언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 ② 갑: 이웃에 대한 공감이나 합리적 판단을 따랐기 때문이다.
- ③ 을: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 ④ 을: 절박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 의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 ⑤ 갑, 을: 위험에 처한 이웃에 대해 동정심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10. 그림의 A ~ 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가?

ㄴ. B: 행복을 위해 공적인 삶을 피해야 하는가?

ㄷ. C: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ㄹ. D: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한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나 신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의 진리를 보다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 ① 신앙과 이성은 대립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
- ②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다.
- ③ 최고의 행복은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 있다.
- ④ 이성은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는 수단에서 배제된다.
- ⑤ 이성으로 발견한 진리가 신앙의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

12.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ㄴ)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를 전제로 하되 부분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 생산물은 인간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배하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나)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명백하게 알고 싶다면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사실을 보아야 한다. 그 사실은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들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생명 의지를 긍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진실하다.

- 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이다.
- ②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이 선(善)이다.
- ③ 생명들의 가치는 객관적인 위계질서를 갖는다.
- ④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부정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이성(理性)을 지니고 있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눈이 있어도 받아 없으면 갈 수 없고 받아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지(知)와 행(行)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공부를 하는 데 먼저 필요한 것은 앎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지만 본 후에 다시 마음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지와 행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포함한다. 공부할 한다는 것은 양지(良知)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

< 보 기 >

ㄱ. A: 마음[心]을 떠나서는 어떤 이치도 없다.

ㄴ. A: 지행(知行)에는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있다.

ㄷ. B: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일치가 참된 공부이다.

ㄹ. C: 사물의 이치[理]를 탐구하여 지(知)를 늘려가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5.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추론을 중심으로 도덕 문제에 접근하면 윤리학은 원칙과 논증의 학문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덕 문제에 논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추상화의 과정보다는 구체화의 과정이 요구되는 배려의 관점에서 도덕 문제를 풀어 나간다. 우리는 남성적 목소리를 담은 윤리가 간과하고 있는 여성적 목소리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남성 중심의 윤리가 여성 중심의 윤리보다 우월하다.
- ② 정의와 공정성을 실천하는 능력이 도덕성의 핵심이다.
- ③ 남성 중심의 윤리와 여성 중심의 윤리는 양립할 수 없다.
- ④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 ⑤ 배려와 공감의 능력 함양이 도덕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16.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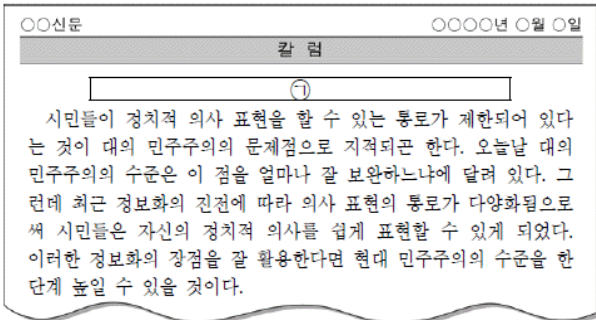


- ① 경전에 통달해야 불성(佛性)을 깨우칠 수 있다.
- ② 삼독(三毒)을 제거해도 악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 ③ 점수(漸修)는 온전한 부처가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 ④ 수행을 함에 있어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으면 안 된다.
- ⑤ 만물의 독자적 실체는 연기(緣起)의 법칙을 통해 형성된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17. 그림은 신문 칼럼이다.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자 투표 활성화를 통해 대의 제도를 폐지하자
- ②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
- ③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
- ④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선거 연령을 낮추자
- 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심의 과정을 확대하자

18.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국가가 주관적 도덕이 지배하는 가족의 원리와 객관적 법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의 원리를 결합한 최고의 인륜(人倫)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자연권의 향유가 불확실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동의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사상가가 (가) 고 생각한다.

- ① 국가는 절대 정신이 현실에서 구현된 것임을 알고 있다.
- ②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 보호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 ③ 국가의 목적과 시민 사회의 목적이 동일함을 모르고 있다.
- ④ 국가는 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산물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⑤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의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19. (가), (나)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가) 무왕(武王)은 누구에게나 효자로 불린다. 선조(先祖)가 행했던 예(禮)를 행했고 그가 들었던 음악을 연주했으며 그가 아꼈던 혈육을 사랑했다. 이와 같이 제례에 밝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것이다.

(나) 무왕이 정치를 할 때는 공정하게 분배했다.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이에게 벌을 주었으며 친척이나 형제를 사사로이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왕의 차별 없는 사랑[兼愛]이다.

< 보 기 >			
		친소(親疎)를 헤아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군주는 예악(禮樂)을 중시해야 하는가?	예	ㄱ	ㄴ
	아니요	ㄷ	ㄹ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ㄱ)~(ㄴ)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감, 울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감: 실존이란 주관성이다. 그리고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것이다.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설 때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울: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인간이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그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 받았다.

◎ 학생 답안

감은 ㉠ 참된 신앙을 통해서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고, 울은 ㉡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 감은 주관적 체험을, 울은 객관적 합리성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감, 울은 모두 ㉣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 주목하였으며, ㉤ 각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